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해양수산분야
사업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13일 고창군 수협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고창군 어촌계협의회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설명회는 고창군 해양수산과, 고창군 수협, 고창군 어촌계장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정성과와 2023년 해양수산분야 사업 설명,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해는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어촌계별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고창사랑 기부제 홍보 협조도 당부했다.

해양수산과에선 갯벌 식생복원 사업, 국민 안심해안사업, 하천권역 어촌 유희시설 맞춤형 귀어스타이 조성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청 서치근 해양수산과장은 "고창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어촌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가족센터, 방문
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화순)는 지난 14일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는 23년도에 방문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다문화가족들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방문교육은 센터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주2회 2시간씩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최초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를 대상 80회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은 언어, 문화차이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생애주기별(영아기·유아기·아동기)로 나누어 각 40회씩 제공한다.

또한, 자녀생활은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학습지도, 독서코칭, 숙제지도, 기본생활습관 등 80회씩 제공한다.

/부안=김석진기자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이학수 정읍시장, 설 명절맞이 복지시설·단체 위문 나서

정읍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각종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44개소를 비롯해 경로당 724개소와 저소득층·저소득 한부모가족 488세대 등이다. 시는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기 중위소득 100% 이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골고루 지원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으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기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요 정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부합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했다.

이와 별개로 정읍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읍·면·동장 등 공직자들도 직접 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공직자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이웃돕기 집중 실천 기간을 운영하며 위기가구 등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민족 대명절 설 만큼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설 연휴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법적 범위 내 홍보 '당부'

이학수 정읍시장, 중앙부처·전북도 주요 정책 신속한 동향 파악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16일 영상 간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공감’ 홍보로 설을 맞아 정읍에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으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기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요 정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부합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부안군은 설 연휴기간(2023. 1. 21. ~ 1. 24. 4일간) 중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부안군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병의원 4개소, 약국 12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개소를 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 운영하여,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와 군민들

의 진료 및 약품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도서지역인 위도면은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의료취약지역인 위도 주민들을 응급상황 시 신속 이송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기간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신고된 35개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세부 운영 일정은 부안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정보센터(www.e-gen.or.kr)에서도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군민들께서 사전에 반드시 설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확인한 후 필요 시 해당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길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속적인 우호교류 약속

고창-제주 농촌지도자회, 쌀과 굴 판매하며 교류활동

고창군 농촌지도자 연합회(회장 최종업)가 제주도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교류활동을 위해 최근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창군연합회 쌀 2000kg, 제주시연합회 굴 300박스를 서로 교환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앞서 고창군-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5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선진농업 기술교류 및 우량종자 자급자족 △조식화합 및 영농정보 공유 교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약속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매결연 단체와 농업인 학습단체와의 시·군연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고창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지도자회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고창군은 750명 회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장학숙 2023년 신규입사생 모집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정읍장학숙의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

이번 정읍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인원은 재입사생 48명을 제외한 50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28명이다.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학업 성적과 가정 형편, 가산점 등을 종합 심사한 후 내년 2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고일 기준 부모나 학생 중 한 명이 정읍시에 주소

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학업 성적과 가정 형편, 가산점 등을 종합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입사생은 입사비 75만원(연 1회), 1일 3식이 포함된 월 15~2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 내년 2월까지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입사원서는 신청 기간 내에 정읍시 인재양성과(제2청사 위치)와 정읍장학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정읍장학숙(031-472-23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집중관리 나서

정읍시가 설 성수품 가격안정 대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시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과 주요 성수품 등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생고을시장과 새안로 삼점가 일대에

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어성 소비자연합 정읍지부 신명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과 물가 모니터요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과일과 농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의 물가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 구매와 과소비 자제를 당부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독려, 상인들에게는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 위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